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별망의 도시에서 죄의 짐을 지고 살던 사람에게 전도자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천로역정의 한 장면

제245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5.3.30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제자로서 세상속에서 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협력목사: 김홍현
전임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이건명
교육전도사: 김상진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C G/B Am7 C/G F A7/E Dm7 G7 C G/B Am7 C/G Fmaj7 G7 C

주님의성-령 지금 이곳 에 임-하 소 서 임하 소 서

Am7 Em7 F G/F Em7 Am7 Dm7 G7 C Am7 F G7 C

할렐루야 할-렐 루야 할 렐-루-야 할렐루야

성서교독 시편 2편 다같이

인도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성도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인도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성도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인도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성도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도자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성도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인도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인도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다같이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참회기도..... 나,이웃,교회,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우리 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 주안에서 거듭난 생명,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응답

말씀읽기..... 누가복음 19:1~23 다같이
말씀묵상과 권면 나눔..... 이길주 목사
말씀기도..... 다같이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인도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들 **보냄받은 곳에서 주님 주신 은사로 사역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은혜와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묵상

성경말씀 새한글성경

(누가복음 19:1~23) (1) 예수님이 예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계셨다. (2) 그런데, 보라,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름은 삭개오라고 했다. 그는 세금업자의 우두머리였고, 또 그는 부유했다. (3)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에게 막혀서 그럴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4) 그래서 그는 앞으로 먼저 달려가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막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5)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는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깐요.” (6) 그러자 그는 서둘러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7) 모두가 보고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갔어! 손님으로 묵으려고 말이야!” (8)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올려대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9)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지요.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겁니다.” (11)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덧붙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 계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장,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12)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분 높은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났어요. 자기가 임금으로 다스릴 권한을 받아서 돌아오려는 것이었어요. (13)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종 열 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므나 열 개를 맡겼어요. 그러고는 그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해라.’ (14)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싫어해서 그의 뒤에 대표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위에서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15) 그런데도 그가 왕권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은돈을 맡겼던 그 종들을 불러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어요. (16) 첫 번째 종이 이르러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의 1 므나로 10 므나를 더 벌었습니다.’ (17) 주인이 그에게 말했어요. ‘잘했구나, 착한 종이! 네가 아주 작은 일에서 믿을 만했으니 열 개의 도시 다스릴 권한을 가져라!’ (18)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의 1 므나로, 주인님, 5 므나를 만들었습니다.’ (19)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했어요. ‘너도 다섯 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20)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므나입니다. 제가 수건에 싸서 따로 잘 두었던 것입니다. (21)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주인님은 깐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22)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 그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악한 종이! 나야말로 깐깐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었느냐? (23)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내 돈을 돈 굴려 주는 곳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바로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1:1 청년 성경과외	정한 요일과 시간에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전임전도사	전정민
협력목사	김홍현	교육전도사	이건명
		교육전도사	김상진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방문카드>를 작성하신후 사역자들에게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오신 분은 예배 마친후 사무실에서 담임목사님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통독

내일부터 새한글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성경통독 시작합니다.
방식: 매주 월~토까지/ 하루에 1장 읽기

소그룹 모임 2차 두번째 모임

오늘 오후 점심식사-잠시나눔 후에 소그룹모임 2회차 두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 오후2시~4시 (소그룹별로 정하여 마친후 귀가합니다)
장소: 전정민 전도사님 그룹만 교회에서/ 나머지 그룹은 주변 카페 등
자녀들은 교육부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하윤과 함께)

강사	강의	소그룹원
김홍현목사	지금도 꿈꿀수 있나요?	김고은,김정인,김태현,유소현,이수진,조건형,장현주,새가족들
전정민전도사	가정예배 개론	김지영,김점순,장천,정지혜,최경혜,천호림,서진이
이건명전도사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올리는 찬양	김상진,김진아,박사무엘,엄다나,여성은,이춘원,천선영

길목교회 예배당 이전 중보

● **점심식사 마친 후 잠시 예배당 이전 관련 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길목교회가 새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월한 길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길목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아름다운 결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연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중보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섬김

3.30- 박사무엘,전정민 / 4.6- 여성은,천호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섬김으로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 권종신 사모님께 신청해주세요.

다음주 가정심방 신청 마감 - 여성은 사모, 천호림 목사 가정

4월6일 주일오후 나눔후에 가정심방을 갑니다. 오후2시 출발예정입니다. 전정민 전도사님께 신청해주세요. 오늘까지 마감합니다.